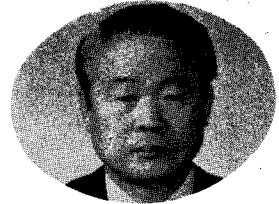


己未年 새해의

새設計

畜産交響樂



함 만 준

(畜産振興會 會長)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앞서간哲人들의 말이 머리에 맴돌곤 한다. 후회없이 살아야하고 후회를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담은 말들이다.

畜産人들의 기대를 어깨에 무겁게 메고 축산진흥회가 出帆한지도 8개월이 흘러갔다.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냈는가 하고自省해 본다.

우리축산이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오늘과 같은 落後의 울타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하는 물음을 풀어 보려고 애써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한 한 해

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때마다 웅장한 심포니와 심금을섬세하게 파고드는 바이올린 솔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다른 分野도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畜産界의 앞날을 밝게하려면 심포니의 和音이 더욱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물론이다.

축산하면 폭이 좁은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서로 다른 「필드」끼리는 和音보다는 옥타브 높은 단음의 소리가 요란한 것같다.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유제품, 육

가공품, 유가공품 등등…… 각기 맡은 분야에서 울부짖는 축산한국의 의욕찬 고향 소리를 和音으로 調和속에 가다듬기 위한 基礎공사를 해보려고 애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축산인들이 조용히 지난날을 비판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도약을 위한 발판을 딛고 전진해야 할 것이다.

소의 분야에서는 먼 훗날을 위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축개량에 힘을 기울여야 겠고 한우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돼지도 자급자족하는 기반을 공고히 굳히기 위해 힘을 써야겠고, 닭의 생산기반이 불안하지 않도록 탄탄한 기초를 굳히도록 뒷바침하

는 것도 課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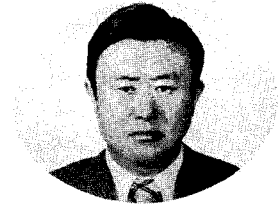
이런 일들을 제대로 틀잡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기관이나 축산진흥회의 노력이 보다 더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바람직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축산인이 한마음 한덩어리가 되어 불신보다 理解에, 분열보다 단합에, 그리고 冷笑의沈黙보다 對話에 바탕을 둔 풍토가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다면 축산한국의 궁극 목표는 빠른시일 안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럴때 농촌소득증대의 기반이 되는 축산발전을 위한 정부의 靑寫眞은 알찬 「畜産 심포니」를 작곡해 내고야 말 것이다.

種鷄의 국내자급이

이루어지는 한해이길…



지 설 하

(畜産試驗場 農學博士)

'78년은 축산업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인 해라고 생각된다.

작년부터 축산진흥 시책이 정부 고위당국의 각별한 배려로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축산인으로서 더 할 수 없이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축산인은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축산진흥 시책에 참여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축산업이 나 또는 내 가족의 부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축산물에 내가 생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축산의 여러 분야 중에서 양계분야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양계진흥시책과 양계협회의 양계생산물의 수요 공급 조절이 주효하여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양계 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여 '78년 6월말 닭의 사육수수가 무려 47,645천 수에 달하여 당초 '81년도 닭의

사육추정 수수인 45,744천수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일면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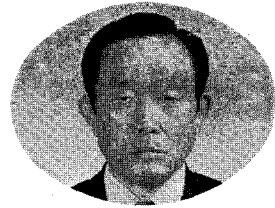
'79년을 맞이하여 연구기관, 학계, 협회 및 양계가들이 우리나라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은 종계, 사료 및 첨가제를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양계 생산물을 생산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외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항상 불안의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종계만이 라도 국내에서 자급해 보자는 생각에서

'76년도에 외국으로 부터 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순계를 도입토록 하였으나 '78년도에는 다시 외국으로 부터 원종계 및 종계를 일부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양계산업 기반 조성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축산시험장에서도 종계만이 라도 국내 자급을 하기 위하여 '78년에 외국으로 부터 육용종 순계를 도입하여 시험에 착수하고 종계개량은 일개 국가기관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새해에는 P.L. 농장과 축산시험장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 기술정보의 교환뿐 아니라 순계까지도 서로 교환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종계의 국내자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生産費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김 동 곤
(국립종축장 부장장)

무오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기미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영위하시는 사업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3월 초순부터 6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장기 한발이 단축된 후에 하계에는 장기 장마와 5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평균 29.6℃라는 살인적 무더위가 지속되었고, 추계에는 또한 장기 한발이 도래함으로서 78년은 그야말로 이상기후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 동원과 농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여 77년에 이어 78년에도 4,000萬섬 이상의 미곡생산을 하였으며, 또한 125億弗의 수출달성 및 G.N.P 1,000불 돌파의 경제국임을 입증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신장하고 이러한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육류수요증가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곡생산과 대등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8년도 육류 공급량을 보면 국민 1인당 77년도의 8.1kg에서 26% 증가한 10.2kg로 계획하고 기중 계육은 2.0kg에서 20%가 증가한 2.4kg의 육류수급과는 별도로 계란은 97개에서 114개로서 18%가 증가하는 계획였습니다. 따라서 78년도의 계육 공급은 육용종계 생산실적이 77년에 비하여 80%가 증가되고 또한 육계 사료생산 실적도 80%가 증산 공급됨에 따라 정부 계획인 계육 26% 보다는 상당히 초과생산하였다고 보며 계란은 78년 9월까지 집계된 채란계 암병아리 생산출하상황으로 추정하면 정부계획대로 18% 증산공급은 그런대로 무난히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78년도의 양계사업의 내면을 돌이켜 보면 73년에 외국 종계 도입이 중지된 이래 현재까지 과거 도입한 종계를 몇 차례에 걸쳐 환우를 시켜 종계로 재이용하였기 때문에 산란율의 저하는 물론 장기간 종란을 생산하는 동안 종계장과 부화장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각종 만성 전염병 감염 등 여러 여건이 불리하여 육계, 산란계 공히 초생추가 부족현상이었으며, 따라서 가격도 예년도에 비하여 초생추만은 좋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후반기 부터는 도입 P.L 種鷄에서도 생산하여 종계, 실용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난가는 6~7월에 너무 하락되어 채란양계업자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상실케 하였을 뿐더러 또한 하절에 예년에 없던 장기간의 혹서와 장마로 산란율이 저하되고 폐사율도 많아짐으로 9월에는 계란 개당 35.9원으로 상승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채란업자는 오히려 경영부족의 기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계는 년초의 육계가의 호황을 예상함에 따라 既存 육계생산업자는 물론 신규업자의 범람으로 과잉생산하여 3~4월에는 예년에

없던 가장 비참한 저렴가격으로 거래되어 폐업까지 초래하게 하는 예가 많은 반면에 가격의 저렴, 夏節의 무더위로 입식격감과 육추중 폐사율증가 등으로 11월에는 kg당 900원선을 廻上하고 심한 지방에서는 1050원선까지 거래한 곳도 있었습니다. 78년도는 계란이나 육계가격이 이렇게 極端에서 極端으로 가는 양계업이어서 가격안정을 위한 蹄要로 계육, 계란의 생산기반 구축도 중요하나 적극적인 적정가격 안정대의 실시로 수요안전대책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며, 육계 및 계란생산업자들은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하기 위하여 양계협회의 기구를 강화하고 조직화하여 여러분들의 참여로 완전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양계도 현재까지는 왕성히 발전을 하여 其間 양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의 닭 개량방향이 년간 산란수의 증가도 중요하나 그 보다는 初産時에 무거운 난중으로 개량하고 자동 집란기 사용시와 계란운반시의 破卵發生 감소를 위한 난각개량으로 기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도 완전 자동 기계화장치 등으로 적절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어 육계, 계란 생산가격을 저하시키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일부 대종계장에서 생산원가 절하의 일환책으로 기계화 시설이 도입되고 있어 팔목할 만한 전진이었습니다.

끝으로, 79년도의 양계는 수입 최고기의 영향, 종계 도입재개에 따른 질병의 만연과 생산 무질서 예상, 400~개 이상의 群小 부화장 등록 등 해결하여야 할 난관도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정밀 관리에 의한 생산효율 향상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소득증대와 자율적인 생산조절, 철저한 방역만이 關鍵이라고 思料됩니다. 또

한 정부에서는 계속, 계란의 수요조절과 안정가격 확립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주시고, 사료의 품질관리철저와 S.P.F종란에

의한 예방약생산공급 등으로 79년에는 양제가족 여러분이 뜻하신 때로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신원합니다.

시책자료를 위해 전 양계인의 협조를



송 찬 원
(農水産部 畜産課長)

새해 設計를 세울 겨를도 없이 어느새 또 한해를 맞이하고 보니 지난해에는 무엇을 얼마나 보람있는 일을 해냈는지 반성하게되며 今年은 알찬 한해를 보내야 되겠다고 매년 그랬듯이 또 한번 다짐해 본다.

지난해에는 우리畜産分野뿐 아니라 農業分野 전체에 순탄한 해였던 것만은 아닌것 같다.

物價가 치솟는 것이 農産物의 供給不足에 있다고 異口同聲이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輸入은 제쳐 놓고라도 예년에는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배추, 고추등 채소류의 供給不足이 農政 當局을 당황하게 하였으니 가히 肉類 不足에 이은 第2 彈이라고 할만하다.

우리나라는 五十年동안 명실공히 農本國家로 成長해온 터에 이제는 肉類, 채소류를 輸入해서 供給해야 되는 立場이 되었으니 急變하는 市場需要에 미처 못따르는 시련이라고나 할까?

農業에 중사하는 우리들로서도 이러한 현상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찢찢치 못찬 立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國民所得이 높아짐에 따라 食生活의 高級化가 誘導되어 肉類消費가 급히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否認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過去와 같이 肉類를 消費하는데 명절이나 생일등 特別한 날에만 이용하던 경향은 이미 멀어져가고 뚜렷한 하나의 食糧으로서 位置로 바뀌었다.

外國의 肉類消費 趨勢를 보더라도 國民所得이 500\$~1,000\$로 成長하는 段階에서 급격히 增加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예외없이 같은 과정을 걷는구나 하고 高度成長의 後유증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 畜産人 모두에게 대단한 各오를 갖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라 생각하며 어쩌면 畜産發展을 爲해 꼭 한번은 겪어야 하는 시련의 過度期가 아닌가하고 자위해 본다.

昨年에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를 輸入하는 立場이 되고보니 항간에서는 닭고기, 계란까지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 될때 輸入하게 되는것이 아닌가하고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는듯 하나, 닭고기, 계란은 國

內生産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며 供給 不足이 초래하는 문제점보다는 安定된 生産을 보장하고 消費者에게 싼값으로 安定的으로 供給을 할 수 있는가에 重點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며 따라서 生産調節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養鷄産業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닭고기, 계란의 備蓄사업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닭고기 계란을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長期的 需給安定을 爲한 備蓄制度의 導入도 중요하겠지만, 養鷄의 그 生産構造로 보아 短期에 擴大 再生産이 가능한 것이므로 生産調節이 더욱 効果的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이미 부화업은 許可制로 規制하고 종계업은 登錄토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이와같이 生産과약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이의 운용은 우리 양계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양계인의 참여 여하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生産調節이 이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 부화업 허가자와 종계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초생추 종란의 반출입 실적을 기

록 보존하고 매월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은 본제도가 시행되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아직 정착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하루 빨리 본제도가 앞찬 통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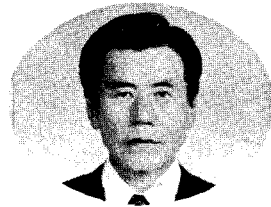
이와같은 생산과약은 앞으로의 생산전망을 가능하게 하며 수요경향등과 잘 조화시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참으로 귀중한 시책자료로 여기서 부터 시책의 첫 걸음이 던어진다고 보겠다.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를 재삼 당부하고 싶다.

그간 양계산업은 자율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며 국민에게 우수하고 값싼 영양식품의 공급을 담당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서가는 만큼 부딪히는 어려움을 점점 그 도가 무거워지는 것을 감안할때 양계인의 단합과 발전적으로 지향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해 마지않으며 새해에 양계인 모두 뜻하시는 바 일들이 고루 성취하시고 앞찬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疾病퇴치 위한 새마음 갖기

운동



朴 道 鉉

(韓協家禽育種農場 代表)

78年 養鷄産業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飛躍의인 發展을 이룩하여 왔는데 그 反面 伸張되어진 擴散이 無秩序하고 無防

備하게 精神面을 침투하여 보이지않게 疾病을 自招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點을 自覺해서 畜産人의 權益을 보호하기 爲한

疾病퇴치 새마음 갖기運動을 新年부터 展開해야겠다.

지난해에도 國家의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어 政治的 安定的 바탕위에 畜産人들의 참된 맘의 결정으로 自立基盤을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內的으로는 精神教育強化, 새로운 技術習得, 合理的인 人力管理, 科學的인 飼養管理體制로 安定基盤을 조성하여 더욱 더 國產鷄의 經濟能力을 향상시키고 外的으로는 國內外 弘報活動強化, 技術교류 및 國產鷄 輸出의 길을 적극 모색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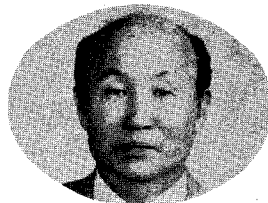
業界나 行政當局에 바라고 싶은일은 昨年後般에서 今年の 오늘에 이르러 各種外國鷄가 各國으로부터 輸入되어 이로인한 各種疾病의 被害는 直接 間接으로 많은 소

크를 던져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B, IBDV, EDS, 등등 벌써 養畜業者들은 經濟的인 損實을 직면하고 있는 現實이고 더욱이나 IBDV는 면역항체를 상실(喪失) 시키는 가공할 만큼 무서운 疾病으로서 養畜業者를 공포의 도가니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도록 정보제공을 협조해서라도 아니면 백신을 수입하는 형태이던지 疾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過去 마렐병이 만연되어 극심한 傷處를 남겼던 전철을 다시는 답습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서 이점 널리주시하여서이에 對한 강력한 對策이 강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79年은 전환기로서의

깊은 意味 지녀



이 영 석

(퓨리나코리아 영업부장)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새 마음, 새 다짐, 새출발을 하고싶은 때가 왔습니다.

과거 10년간 축산업은 우리 모두가 예측했던 것 보다는 '더 크게 자랐고 앞으로의 10년간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 보다는 더 크게 발전할것입니다.

국민경제규모와 소득의 증대, 의식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산업근대화결실인 이들 요인이 축산업 발전의 배경이 된것

은 사실이나 그동안 축산진흥의 기치를 들고 보호 육성시책을 꾸준히 펴온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배려하고 정부가 주도하였던 종축 및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보급,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단지화 내지 기업화 추진, 처리가공시설의 육성지원, 가축질병 대책 유통구조개선, 세계상의 특혜 등이 성장 초기 즉 발육기에 해당하는 지난 10년간의 시책으로 크게 주요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그러리라고는 크게 의문시 되어
집니다.

정부가 일일이 배려하기에는 우리의 산
업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크며, 너무 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처점의 배려가
또는 애써 만든 시책이 오히려 성장의 장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이 자라난 것입니다.
젓을 빨거나 엄마가 먹여주는 때는 지난
것입니다.

1978년도, 지난 해는 우리에게 많은 것
을 시사해 준 해였습니다.

고기가 모자라 돼지고기 까지 들여와야
했습니다.

젓소를 내놓고 농장을 판다는 사람이 늘
어났습니다.

배합사료도 제때에 알맞는 것을 골라
물량확보가 어려웠고 그나마 품질면에서
는 그전만 못합니다.

배합사료공장은 그 나름대로 제품의 기
술개발이나 양축가 서비스는 엄두도 못내
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 물량수급의 배급방식
- 가격의 통제
- 기술영역의 지나친 규제

이런것 가지고는 앞으로 10년간을 이끌
어 갈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로 우리는 이제 1 단계에서 2 단계로,
유아기에서 청년기로, 후진국에서 중진국
으로,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부업단계에서
전업 내지 기업으로 올라서고 돌아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979년 올해에는 우리 모두
가 깊이 생각하여야 할 해라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
교류의 물결을 타고 살아야 합니다.

요새 말로 자원, 기자재, 과학 기술 문
화 관광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의 교
류가 증대할것입니다.

1970년보다 1978년은 배합사료 생산량
이 약 5 배에 이르렀고 1979년 올해는 330
만톤 1991년에는 1,100 만톤이 정부의 계
획이고 원료의 수입의존도는 지금의 70%
에서 85에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모두 새해에는 생각과 마음을크게
가져야겠습니다. 행정을하는 사람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및 생산업에 종
사하는 모든 사람이 좀더 시야를 넓히고
차원 높을 생각과 자세로 우리국민 전체
가 살아갈단백질품을 공급한다는 보람을 가
지고 행정은 기술을, 기술은 사업을 뒷받
침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국제경쟁에서 선
진대열에 오르고, 풍요한 사회건설을 향
한 첫 발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
다.